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완료

캠코, 주식 6868만주 매매계약 체결 ... 인수금액 3조3724억원 달해

포스코가 3조원3724억원에 자원 개발기업 대우일너내셔널을 인수했다.

대우인터내셔널 공동매각협회의 대표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월3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총발행주식의 약 68%인 6868만1566주를 3조3724억원에 인수키로 했으며 최종 매각대금은 포스코가 당초 제시한 입찰대금 3조4602억원에서 878억원(2.54%)가량 떨어졌다.

포스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워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매각을 완료했으며, 전략적인 매각 추진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중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999년 워크아웃을 개시한 구 대우가 2000년 회사 분할 과정에서 무역부문만 떼어내 설립된 회사로 2003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채권단은 2003년 대우인터내셔널 출자지분 공동매각협회를 구성하고서 작년 9월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화학저널 2010/08/30>